



미 증시, 신용등급 전망 강등에도 낙폭 제한되며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13 일(월) 미국 증시는 CPI 경계심리,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 강등 소식 등으로 지수 상단은 제한된 채 개별종목 장세 보이며 혼조세 마감 (다우 +0.16%, S&P500 -0.08%, 나스닥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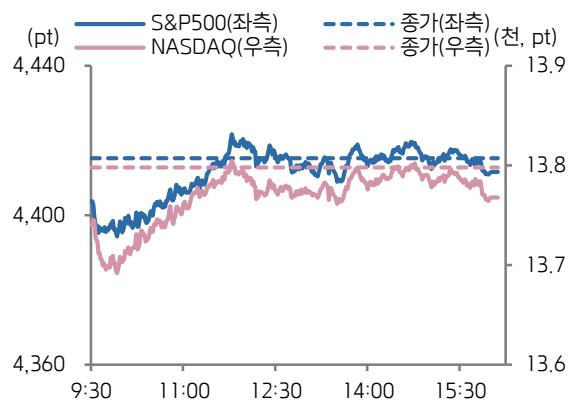
マイク 존슨 미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앞두고 내년 1~2 월 만기의 '2 단계 임시예산안'을 발표, 14 일 표결예정이지만 하원 공화당 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교통·농업·주택·에너지 관련 부처와 국방부·국무부 등의 예산 기한을 각각 내년 1 월 19 일과 2 월 2 일로 분리, 대규모 예산 삭감,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 등 민주당과 공화당 간 견해차가 큰 논쟁적 사안은 제외.

백악관은 15 일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군사 부문 대화 복원을 최우선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언급. 중국은 작년 8 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군사 부문을 포함한 양국 간의 대화를 사실상 단절한 바 있음.

업종별로 에너지(+0.7%), 헬스케어(+0.6%), 필수소비재(+0.4%) 강세, 유틸리티(-1.2%), 부동산(-0.8%), IT(-0.5%) 약세. 보잉(4.01%)은 에미리트항공이 보잉 777 90 대, 787 드림라이너 5 대 주문 소식 및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에서 중국측으로부터 대규모 주문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급등. 엔비디아(0.59%)는 새로운 AI 칩 H200 GPU 발표, H200 칩으로 구동되는 시스템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파트너가 2024 년 2 분기부터 이용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히며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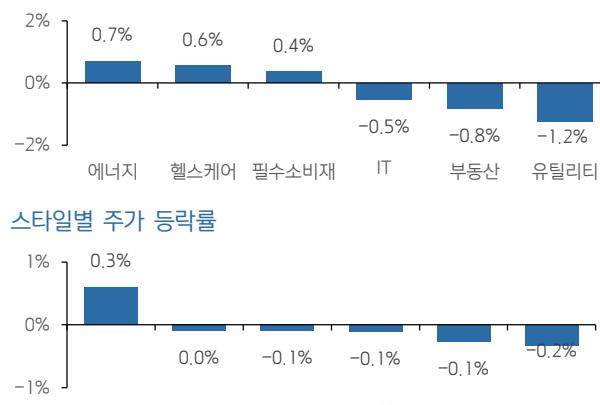
테슬라(4.22%)는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구매자들이 1 년간 재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 공개, 인도가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 리비안(5.13%)은 조지아주에 새로운 전기차 시설에 필요한 약 2000 에이커를 임대하고 부지 개발을 진행하기로 발표하며 강세, 루시드(4.47%), 니콜라(4.59%) 등 전기차 동반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03.76	-0.24%	USD/KRW	1,325.04	+0.62%
코스피 200	323.31	-0.14%	달러 지수	105.66	-0.19%
코스닥	774.42	-1.89%	EUR/USD	1.07	+0.02%
코스닥 150	1,230.50	-1.88%	USD/CNH	7.29	-0.01%
S&P500	4,411.55	-0.08%	USD/JPY	151.69	-0.02%
NASDAQ	13,767.74	-0.22%	채권시장		
다우	34,337.87	+0.16%	국고채 3년	3.872	+1.8bp
VIX	14.76	+4.16%	국고채 10년	4.007	+4.7bp
러셀 2000	1,705.50	+0.01%	미국 국채 2년	5.035	-2.7bp
필라. 반도체	3,556.75	-0.97%	미국 국채 10년	4.640	-1.2bp
다우 운송	14,379.44	-0.33%	미국 국채 30년	4.755	-0.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32.19	+0.83%	WTI	78.26	+1.41%
MSCI 전세계 지수	666.26	+0.59%	브렌트유	82.67	+1.52%
MSCI DM 지수	2,900.76	+0.76%	금	1950.2	+0.65%
MSCI EM 지수	948.32	-0.83%	은	22.36	+0.35%
MSCI 한국 ETF	59.69	-1.01%	구리	366.6	+2.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1%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0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6%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8.6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6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미 CPI 경계심리의 장중 유입 심화 여부

주요 체크 사항

2. 테슬라(+4.2%) 등 미국 전기차주 동반 강세가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3. 공매도 금지발 수급 불안 국면 지속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밸류에이션 부담을 가했던 10년을 금리 상승 이슈를 놓고,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 10월 중 터치했던 5.0%가 고점이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 중.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던 11월 FOMC를 거치면서 이 같은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시장이 계속 경험해온 것처럼, 그때 그때 발표되는 인플레, 고용 등 통화정책과 관련된 데이터에 따라 금리 및 주가가 가변성을 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금일 밤 예정된 미국의 10월 CPI 결과가 12월 FOMC까지의 증시 방향성에 영향일 미치는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판단.

10월 CPI 컨센서스는 헤드라인이 3.3%(YoY, 최고 3.4%, 최저 3.2%)로 9월(3.7%)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코어는 4.1%(YoY, 최고 4.2%, 최저 4.0%)로 9월(4.1%)과 동일할 것으로 형성. 연준은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음. 가령, 9월 헤드라인 CPI 쇼크를 유발했던 요인으로 중동 전쟁으로 100 달러 이상의 레벨 상승이 일어날 줄 알았던 WTI 유가는 현재 80 달러 넘지 않고 있음. 10월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도 전년대비(YoY) -4.0%, 전월대비(MoM) -2.3%로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10월에도 인플레이션의 레벨 다운 추세는 훼손되지 않을 전망.

결국 작년에 시장이 인플레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이라는 재료는 향후 증시에서 “부정”보다는 “중립” 혹은 “중립 이상”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 다만 이번 CPI 결과와 관련해 시장 컨센서스의 레인지가 이전보다 좁아졌다는 점은 고민할 필요가 있음(헤드라인 3.2~3.4%, 코어 4.0~4.2%). 특정 지표 이벤트에 대한 주가 변화는 컨센서스 상회/하회 여부에 일시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것이 증시의 특성이기 때문. 따라서, 컨센 레인지가 좁다는 것은 실제 결과치가 컨센을 벗어날 확률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하는 만큼, 이번 10월 인플레이션 발표 후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확대는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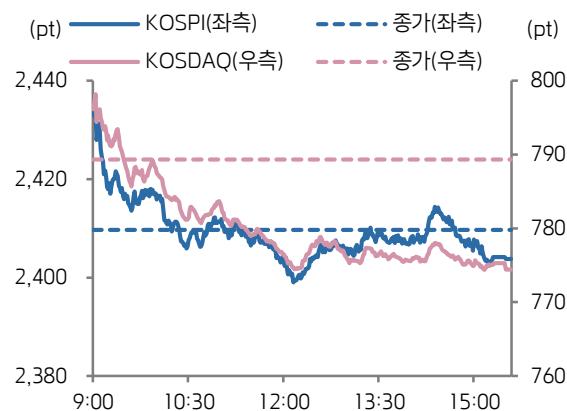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급등에도,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급 불안 여진 속 반도체 장비, 엔터 업종의 실적 부진 등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심화시키면서 하락 마감(코스피 -0.2%, 코스닥 -1.9%)

금일에는 달러화 약세, 11월 수출 호조(~10일, +3.2%YoY), 미 공적연금 캘퍼스의 지분 매입 및 인도의 외국산 관세인하 기대감 발 테슬라(+4.2%) 등 미국 전기차주 강세와 같이 우호적인 재료가 상존함에도, 미 CPI 경계심리, 공매도 금지 발 수급 변동성으로 인해 증시 상승 탄력이 제한되는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

지금 코스닥은 공매도 금지 시행 첫날 7%대 폭등한 이후 연이은 급락세를 보이면서, 13일 종가(774.42pt)가 공매도 금지 이전 시기인 3일 종가(782.05pt)보다 낮은 가격대로 내려온 상황. 최근 데이터인 9일자 기준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는 6.0 조원으로 6일(6.7 조원)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다른 점을 미루어 보아, 솟커버링이 나온 만큼 공매도 금지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은 해볼 수 있음(9일 코스피 공매도 잔고 11.2 조원 vs 6일 12.5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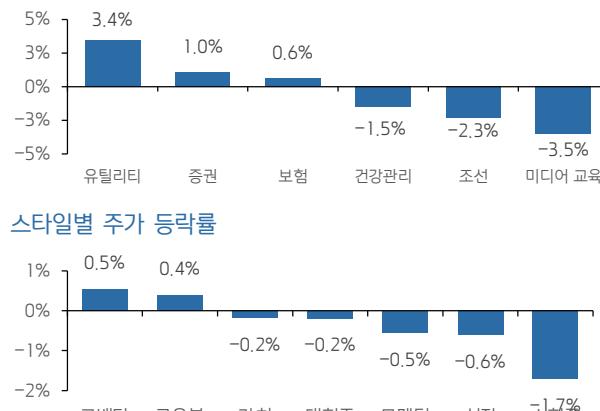
하지만 특정 종목의 향후 주가 상승을 우려해 나타나는 솟커버링도 있지만(손실 회피 성격), 주가가 고점을 찍은 후 빠졌을 때 나타나는 솟커버링(이익 실현 성격)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결국 공매도가 주가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금지시켜야한다는 것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 이에 더해 데이터센터 관련주, HBM 관련주 등 코스닥 내 반도체 업종들의 실적 쇼크의 여진이 금주 남은 기간동안 코스닥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잔재해 있을 전망. 이를 감안 시, 현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외국인 수급(10월 코스피 +1.6 조원 vs 코스닥 +0.4 조원), 양호한 수출 전망, 중립 수준의 매크로 환경 등을 고려해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비중 확대에 나서는 것이 적절.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